

2012.3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2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국	
2012.3.28	대전MBC 대회의실	8/11	6	

○시청자위원 불참자(3명) 명단: 안정선,여운철,김진국 위원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고대석 사장, 강덕원 경영기획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임양재 보도국장, 정갑관 기술국장, 장래균 기획심의 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5	3		1	9		9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2	7		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2 건	2 건	
보도	총선 후보자 초청토론 홈페이지 만들었으면 좋겠다.	바로 총선 관련 홈페이지 구축함	12.3월
보도	총선 후보자 초청토론 부제 및 경력자막을 자주 내보내라	바로 시정조치함.	12.3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보도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중 <서구 을>편은 진행자가 안정적이었으나 <세종시>편은 딱딱한 진행을 하였다. 두 편의 진행방식이 차이를 보였는데 통일할 필요는 없는가 (유치벽 위원)	자치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다 보니 진행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누구를 위한 주 5일 수업인가?’는 시기적절한 소재였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유치벽, 김경옥 위원)	좋은 평에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주 5일수업의 문젯점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은 타 방송사보다 양과 질에서 우위를 보였다. 후보자 주도의 토론방식이 참신하며 질문내용도 좋았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참여형 질문을 받으면 더 좋겠다. (김재영 위원)	앞으로 검토대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할애받은 시간이나 시간에 쫓긴 총선일정 등으로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별도의 ‘총선 후보자 초청토론’ 홈페이지를 만들어 시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김재영 위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바로 총선 관련 일정표와 동영상을 담은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다.	보도 수용
교양	‘특급작전-사랑방 손님과 옥회’는 풍자가 약하고 품격이 떨어진다. (신현대 위원)	이 코너의 문젯점에 대해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건강플러스’는 구성은 좋으나 출연자들의 용어 설명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영어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쉽게 표현하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 남녀 진행자의 복장이 조화롭지 못한 경우가 있다. (신현대 위원)	출연자들에게 쉬운 우리말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고정 출연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 충분한 사전 점검을 통해 쉬운 용어를 찾도록 검토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기타	홈페이지의 글씨 크기가 작은 감이 있다. 전반적으로 정비의 필요성을 느낀다. (신현대 위원)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준비중이다.	경영 의견참고
보도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은 파업중에도 고품격의 토론을 방송해 칭찬해 주고 싶다. 기계적 균형은 좋지만 격론 후보는 부각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장 선거는 상징성이 크기에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김경숙 위원)	세종시장 토론은 2차례 가질 계획이었으나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한차례밖에 못했다.	보도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보도</p>	<p>'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은 잘하고 있다. 후보자 경력은 처음만 나오는데 중간에도 내렸으면 좋겠다. 하단 부제도 자주 내보내고 생방송이란 자막도 필요해 보인다. (김영광 위원)</p>	<p>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한다. 바로 시정하도록 개선하겠다.</p>	<p>보도 수용</p>